

# NEWS

2025년 5월 8일 목요일

## 광주시, 전력망 미래기술 실증 거점 도약

### 이상갑 시 문화경제부시장 사직 민주 중앙선대위 법률자문단 참여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취임 1년 2개월 만에 사직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 부시장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 자문단에 참여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법률 자문으로 수차례 요청이 있었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고 이후 민주당의 요구가 컸고, 광주시 추경도 마무리해 민주당 캠프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갑 부시장은 신안 출신으로 서석고등학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8기)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1면 '5·18 45주년'서 계속

특히 그날의 비극을 떠올린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으로 모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 오월 정신은 6·10 민주항쟁을 거쳐 2017년 촛불혁명을 이르게 했고 21세기 세계 민주화운동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다.

45주기를 맞이하는 5·18은 이제 더 이상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이자 세계 민주화의 한 축이 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이젠 멈출 때

1995년 5·18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2021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하지만 5·18 왜곡과 폄훼는 멈추지 않고 있다. ‘호남사람’이라고 외쳤던 한덕수 대신 예비후보는 5·18을 ‘광주사태’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인하는 발언을 하며 공인들조차 5·18 왜곡과 폄훼를 이어가는 현실이다.

지속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고소도 잇따르고 있고, 학교 도서관에는 5·18을 폄훼·왜곡하는 도서가 여전히 비치되고 있다.

5·18 관계자는 “정치권을 비롯해 5·18 역사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이 여전히 해결책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뿐이다”고 당부했다.

###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 선정 전기연에 AC·DC배전망 구축 신기술 진단

광주시에 전력망 미래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도약한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인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AC(교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극성(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이며 DC(직류)는 시간에 따라 흐르는 극성이 변하지 않는 전류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 위치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에 차세대 배전망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근 나주지역에 실제 배전망을 활용해 신뢰성 실험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690억원(국비 525억원, 시비 40억원, 민자) 규모로, 올해부터 4

년간 투입된다. 광주시의 에너지산업 육성 정책 핵심과제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25억원을 확보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테스트베드 구축에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전KDN,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10개 기관·대학이 참여한다.

테스트베드는 산업부가 2022년부터 개발했던 차세대 배전망 기기 및 운영기술 등 10개 과제의 기술성과를 실제 전력망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광주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한국전기연구원 부지에 지중 및 가공을 혼합한 AC·DC 배전망을 구축하고 배전기와 운영기술,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해 전력 신기술·기기의 계측·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나주에는 기존 AC배전망을 DC배전망으로 전환해 현장 운영기술과 신뢰성 검증이 이뤄지며, 사업 종료 후에는 광주와 나주 모두 상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실증 인프라로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테스트베드 사업을 기반으로 광주를 국가 배전기술 실증 및 상용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실증 인프라를 발

전시켜 시험·인증 기능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력망의 핵심 기술을 검증하고 신뢰성 평가를 통해 지역 내 전력계통망을 강화해 계절별 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력 인프라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주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 사업은 광주가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라며 “지역 전력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주주의 꽃은 선거’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7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치인의 기부행위 금지와 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 재난안전산업 키운다...5년간 148억 투입

### 실태조사 토대 제품개발·판로 확대 등 3대 추진전략 수립 인공지능 집적단지 활용...안전산업 허브·스타트업 육성

광주시에 내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 R&D(연구개발) 확대,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재난안전제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한다.

광주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산업 5개년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광주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지역 재난안전기업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제1차 재난안전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연계해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5년간(2026년~2030년) 총 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9대 주요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강점인 AI·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시장 진출을 지원해 중소기업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산업을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난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지속가능한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광주시는 AI,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기반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난안전산업은 후발 영역으로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재난안전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무안국제공항 안전수준 대폭 강화

무안국제공항의 안전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 시설은 경량 철골 구조로 전면 교체되고, 활주로 길이도 연장되며,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국 공항 중 최초로 조류탐지레이더가 설치돼 항공기와 조류간 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4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안전 수준을 대

###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 철골 구조로 교체 하반기 전국 최초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폭 강화해 도민과 이용객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공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현재 199m인 종단안전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에 맞춰 활주로 양 끝 240m 이상을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방어선을 갖추게 된다.

2800m인 활주로도 8월까지 3160m로 연장될 예정으로,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전국 공항 중 최초로 무안국제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가 설치돼 조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최첨단 시스템으로 무안국제공항 항공안전 혁신의 핵

심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열화상카메라, 음파 발생기 등 추가 장비가 8월까지 도입되고, 조류 대응 전담 인력도 현재 4명에서 연말까지 12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조류 퇴치용 드론을 개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항 주변 환경 관리도 한층 체계화된다. 기존에는 공항 반경 3~8km 이내를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13km까지 확대한다. 또 한 조류 감시용 CCTV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춘 통합감시센터가 내년에도 시범 설치돼,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수공항의 항행안전시설도 대폭 개선된다. 연말까지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높이 4m의 둔덕을 제거하고, 충격 시 파손되는 경량 구조물로 교체된다. 조류 탐지 레이더도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설계를 착수하는 등 무안국제공항과 함께 전남지역 공항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이 무안국제공항의 재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안국제공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서남권 관공항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